

책으로 떠나는 모험, 고창 책마을 해리서 출발해요



‘공장을 다니다 폐병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잡아다준 해산물을 먹고 폐병이 나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져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 다시 집으로 갔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잘 산다는 중매쟁이 말만 듣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도 없고 가난했습니다. 나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 진만 찍고 살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칠순때 입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한쪽 수족을 못쓰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그 꿈도 다 깨졌습니다.’

얼마전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에서 열린 ‘한국 지역도서전’의 ‘할매작가 전성시대’전에 전시된 김정자 할머니의 시 ‘사진만 찍은 결혼식’의 일부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편지지에 연필로 써 내려간 할머니들의 진솔한 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비닐하우스를 연상케 하는 대나무 전시관에는 순천 ‘할매들’의 지난한 삶의 기록들이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고창의 책마을 해리에서 열린 ‘한국지역도서전’은 수도권 중심의 출판구조로 인해 힘을 잃어가는 지역출판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수원에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국지역 도서전은 전국의 지역출판사가 출간한 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 지역 도서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행사장인 책마을 해리였다. 책마을 해리(총장 이대건)는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시킨 이색적인 도서문화공간. 문단은 폐광촌을 세계적인 책마을을 탐방객한 영국 웨일즈의 헤이 온 와이 처럼 고창 해리엔 월봉마을의 폐교를 도서관과 작은 책방, 북스테이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책마을 해리는 지난 2006년 학생들이 떠난 폐교를 책이 태어나는 공간으로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2007년엔 스테이 공간으로, 2009년엔 작은 도서관(버들논도서관)으로, 2012년부터는 책공방·동화평화도서관 등을 갖춘 책 중심의 복합테마 공간으로 변신했다. 출판브랜드인 ‘책마을해리’ ‘도서출판기억’ ‘나무늘보’가 함께 하는 것도 책마을해리의 자랑이다.

교실 2개를 합쳐 만든 ‘책숲시간의숲’에는 3만여권의 책이 천장까지 빼곡히 꽂혀 있다. 책마을 해리의 색깔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누리책공방’에서는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책을 기획한다. 한지의 고장인 고창의 전통을 잇기 위해 만든 한지활자공방, 만화방, 건축학교가 열리는 목공방도 있다. 책마을갤러리에서는 마을 학교 학생들의 그림 전시와 작가들의 특별전시가 이어진다. 건물 사이 큰 나무 아래 바람연막에서는 작은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스스로 감하는 ‘책감옥’이다.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들어가 다 읽기 전에 내놓을 수 없는 곳이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게 돼 있고 문 아래쪽에 사식 넣는 구멍까지 있다.

무엇보다 책마을 해리는 매주 주말 다양한 읽기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기록하고 출판하는 생태계를 일구고 있다. 책마을해리가 책 중심의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임을 일



2006년 이대건 총장, 폐교 리모델링 책 중심으로 목공방·공예·전시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문화공간 스스로 감하는 ‘책감옥’ 가장 인기 기증받은 책17만권...90여권 책 출판

깨워주는 대목이다. 그런 이유로 책마을해리에는 ‘학교’가 유독 많다. 시인학교, 만화학교, 생태학교, 그림책학교, 서평학교, 동화캠프 등의 역사학교가 대표적이다. 이대건 총장은 “온 마을이 책이고, 마을 주민이 저자”라면서 “책마을해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해왔다”고 소개한다.

올 여름에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책마을해리 어린이 출판캠프’(8월 5-7일)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출판대학’(8월-10월)을 잇따라 개최해 관심을 끈다.

책마을해리의 슬로건은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다. 폐교 곳곳에는 기증받은 책 17만권이 책의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일은 전부 ‘읽고, 하고, 쓰고, 퍼내기’의 과정이다.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따라서 해보고, 한 일을 기록해 책으로 펴내는 것이다. 월봉마을 아짐들을 위한 마을학교 이름은 ‘밭 매다 판짓거리’다. ‘책 학교’ ‘밭 매다 판짓거리’처럼 매주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당일 혹은 2-3일 캠프도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 책 계약서부터 쓰고 시작한다.

마을학교를 통해 지금까지 출판된 책은 90여 권. 결과 보고서 형식까지 합하면 120여종이다. 경주지진을 주제로 고등학생 12명이 함께 쓴 ‘흔들리며 흔들리지 않고’는 2017년 우수 출판 콘텐츠인 ‘세종도서’로도 선정됐다.

근래 책마을해리에는 마을학교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 도시재생 관계자 등 ‘마법의 학교’를 벤치마킹하려는 견학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할 단체 방문이 이어진다. 전국 곳곳에 제2, 제3의 책마을이 들어서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 070-4175-0914. /고창=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총장



- 1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책마을 해리의 서가.
- 2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은 책감옥 내부 모습.
- 3 한국지역도서전의 프로그램이 열린 대나무 전시관.
- 4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벽화.



“마을사람들과 농사짓듯 책 만들어요”



고창이 고향인 이 총장은 대학에서 국문학과를 전공한 문학도였다. 대학 졸업후 20년 동안 책을 만들어내는 기획자, 편집자로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책마을 프로젝트’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 e-북이 광풍처럼 확산되자 많은 출판사들이 전자책만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졌다.

‘이러다 종이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책을 만지고 읽는 경험을 이제 누릴 수 없는 것인가.’ 오랜 고민을 하던 그는 책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꿈꾸기 시작했다. 마을사람들이 품앗이하며 농사짓듯 책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고창에 내려온 그는 증조부가 마을을 위해 만든 나성초등학교를 사들였다. 1936년 광송 간이학교로 개교했던 학교는 1970년대 초등학교가 된 후 한때 학생수가 800-900명에 달해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농촌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01년 문을 닫은 폐교는 고창군이 처분한 후 후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매입할 수 있었다.

이 총장은 폐교 매입 후 5-6년은 아내, 두 딸과 함께 주말농장처럼 다니다 2012년 아예 폐교에 내려왔다. 책마을해리는 현재도 진화 중이다. 중앙 교사 벽에는 ‘승공 없이 통일 없고 방첩 없이 평화 없다’는 빛바랜 반공구호가 남아 있고 기린, 사자 동상이 여전히 건물을 지키고 있다. 건물 안에는 눈 돌리는 곳마다 책이 쌓여 있다. 책 더미 속에서 오래전 읽었던 책을 발견하는 뜻밖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고창=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